

보도일시 (인터넷) 2024. 12. 15.(일) 11:00,
(지면) 2024. 12. 16.(월) 조간

배포 2024. 12. 13.(금) 오후

항만 재해대응력 강화를 위한 심해설계파 개정 공청회 개최

- 태풍 등 최신 기상 상황을 반영한 심해설계파 개정을 위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12월 16일(월)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해안·항만 분야에 종사하는 산·학·연 관계자와 지자체 및 지방해양수산청 등 현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2024년 전국 심해설계파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심해설계파는 항만시설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설계 시 활용하는 우리나라 해역의 파랑관측 및 예측 자료로,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강해진 태풍, 폭풍 해일 등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항만을 구축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보완하여 개정하고 있다.

해수부는 2019년 전국 심해설계파를 산출한 이후에 내습한 태풍 마이삭 및 하이선(2020년), 힌남노(2022년)와 같은 고강도 태풍과 최신의 기상 상황 등을 반영하여 심해설계파를 개정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태풍 등 최신 기상 상황을 반영한 심해설계파의 산출 방법 및 결과 등을 설명하고 산·학·연 관련 전문가, 지방해양수산청 및 지자체 업무담당자 등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공청회를 통해 수정·보완된 심해설계파는 해안·항만 관계자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파랑관측 자료 제공시스템(www.wink.go.kr)'을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항만은 우리나라 수출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로 안정적인 운영이 중요하며 심해설계파의 지속적인 관리는 항만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 정부는 기후변화에도 안전한 항만 구축을 위해 항만의 재해대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	책임자	과 장	전총남	(044-200-5950)
		담당자	사무관	전형준	(044-200-5951)

참고

전국 심해설계파 공청회 개요

□ 추진배경

- 지구 온난화 등과 같은 기상이변에 따른 태풍의 강도 변화 및 이상 고파랑 등으로 인하여 최근 우리나라 항만·연안 시설에 대한 자연 재해가 증가 추세에 있어 대처방안 마련 필요
- 이에 따라, 2019년 심해설계파 산출 이후 최신 기상장을 반영한 심해 설계파 산정 결과 등 용역 성과에 대해 설명
 - 지방청 및 지자체 담당자, 학계/업계의 다양한 의견수렴

□ 공청회 개요

- 일시 : '24. 12. 16. (월) / 14:00~16:00
-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B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 참석대상 : 지방청 및 지자체 담당자, 학계/업계 전문가, 설계/시공사 등

□ 세부일정

시간	진행 내용	비고
14:00~14:05	공청회 개회	—
14:05~14:10	인사 말씀	항만기술안전과
14:10~15:00	전국 심해설계파 보완용역 결과 및 개정방안 설명	용역사
15:00~15:50	참석자 의견수렴 및 토의	—
15:55~16:00	마무리 말씀	항만기술안전과
16:00~	자문회의 폐회	—

□ 찾아오시는 길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안내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B 안내도

